

2026년 9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광주문화방송(주)

1. 회의 개최

연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 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26-9	9.16	회의실	11/14	4	1	16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박봉순·박찬호·반수경·설제학·심재현·양지현·유동국·이미진·이숙영·이해경·조명근 위원(11명)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황동현(경영전략본부장), 한신구(방송본부장), 서준배(디지털본부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광고팀 부장)

2. 심의 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 요구

방송 편성	채널 구성·운영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 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0	13	1	0	0	14	0	14

나. 사업자 반영

구 분	수 용	의견 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14	0	0	14

다. 의견제시(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 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뉴스투데이> 주요 뉴스 소개 시 광 주·전남 외 다른 지역뉴스는 제외 바 람	9월 28일부터 우리 지역뉴스만 주요 뉴스로 소개 조치	'26.9
"	청년 창업, 직업, 과학 등 지역 정주 를 위한 분야에 관심 필요	<뉴스투데이> 대기업 실무로 취업준 비··‘K뉴딜 아카데미’ 첫선(10.12), 한국에너지공대 ‘인공지능 인재양성’ 국가사업 3건 선정(10.2), 로컬이 오 히려 기획··길 만드는 청년들(9.28) 등 방송 조치	"
"	지역의 현안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 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도 들어보길 바람	<창사 특집 대토론 메가프로젝트, 대 전환의 시작> 1~3부(10.15, 10.22, 10. 29) 등 방송 조치	"
"	세계섬박람회 관심 바람	<뉴스투데이> 반전 모색하는 세계섬 박람회 남은 한 달··‘승부처’(9.30), <뉴스데스크> 여수섬박람회 방문객 추석 맞아 급증··개막 이후 최다 (9.27) 등 방송 조치	"
"	아침 뉴스 리포트당 시간이 다소 길 고, 앵커의 전달 속도가 늦거나 음성 이 낮아 개선 필요	방송 책임자 의견 전달 및 유의 권 고, 영상 취재, 기술 부문과 협의 조 치	"
"	반도체 공장에 따른 물 부족 문제 등 지역민의 희생에 관한 관심 필요	<뉴스투데이> “댐 하류 생태유량 보 장 및 주민 상생 대책 마련해 야”(10.6), 반도체 산단 용수, 하수 재이용수 급부상(9.21). <창사 특집 대토론 메가프로젝트, 대전환의 시 작> 2부 메가프로젝트, 어떻게 성공 시킬 것인가(10.22) 등 방송 조치	"
"	문화예술 분야 젊은 예술가 발굴, 소 개 필요	<뉴스데스크> 전남광주 예술마을 양 림에서 통하다(10.3), “붓에서 미디 어로” 광주전남 미술 LA에 전시 (10.12) <뉴스투데이> 로컬이 오히 려 기획··길 만드는 청년들(9.28), 등 방송 조치	"
"	전남광주 외 다른 지역뉴스가 방송 됨. 우리 지역 관련 뉴스를 바람	지역 현안 연계 ‘인터뷰 온’ 코너 신 설(9.28) 등 지역뉴스 확대 방송 조 치	"

"	도시와 농촌 교류, 농산물 소비 등 프로그램 바람	제1회 대한민국 김장문화제 개최 (11.20~22), <빛나는 나의 도시> 올 추석은 모싣잎송편으로 모십니다 (9.17) 등 방송 조치	"
"	행정 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 필요	<뉴스데스크> 통합시 출범 100일 여론조사(10.7), 민형배 취임 100일.. 평가는(10.8), <시사용광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100일 어디까지 왔나?(10.8) 등 방송 조치	"
"	<시사용광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제에 관한 배경 설명 필요	<시사용광로> 진행자의 주제 설명 및 영상자료 화면(10.8) 등 방송 조치	"
"	<시사용광로> '청년정책은 청년을 구했나?' 편, 주거, 일자리 등 구체적인 토론 부족 아쉬움	<창사 특집 대토론 메가프로젝트, 대전환의 시작> 2부 '메가프로젝트,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10.22) 등 방송 조치	"
"	<시사용광로>, 토론 이후 지속적인 관심 필요	<시사용광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100일 어디까지 왔나?' 편 방송 이후 <뉴스투데이> 통합시 100일 여론조사(10.12) 등 방송 조치	"
교양	<빛나는 나의 도시> 특정 업체 부각, 광고효과 유의 필요	방송 책임자와 담당 PD 의견 전달 및 유의 권고 조치	"
합계		14건	

라. 시청자 권익 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 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진 창구 운영 중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메일	해당 사항 없음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보도	<뉴스투데이> 주요 뉴스 소개 시 광주·전남 외 다른 지역뉴스는 제외 바람	우리 지역 관련 뉴스를 주요 뉴스로 소개하도록 조치하겠음	○		
"	청년 창업, 직업, 과학 등 지역 정주를 위한 분야에 관심 필요	'인터뷰 온' 대담 코너 등을 통해 청년 창업과 정주 여건 조성 등을 위한 지역 여론 형성에 주력하겠음	○		
"	지역의 현안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도 들어보길 바람	특히 반도체의 경우 지역 미래 먹거리인 만큼 광주상공회의소, 전남대학교, 광산구청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담아 뉴스에 담고 있으며, 앞으로 특집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집중 조명하도록 하겠음	○		
"	세계섬박람회 관심 바람	여수에서 진행하는 행사인 만큼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광주MBC에선 거리감이 있지만 꾸준히 관심을 두고 동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대한 보도하겠음			
"	아침 뉴스 리포트당 시간이 다소 길고, 앵커의 전달 속도가 늦거나 음성이 낮아 개선 필요	해당 아이템에 따라 집중이 필요한 아이템의 경우는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고, 나머지 행정, 문화 등 아이템의 경우는 1분 20초 내외에서 제작하도록 기자들에게 고지해 개선을 유도하고 있음	○		
"	반도체 공장에 따른 물 부족 문제 등 지역민의 희생에 관한 관심 필요	임지락 화순군수 출연과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전문가와 지역 관련 기관들의 대담 출연을 통해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이 없도록 지원이 절실하다는 내용을 충분히 담아냄	○		
"	문화예술 분야 젊은 예술가 발굴, 소개 필요	지역 작가들의 활동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 보도하겠음	○		
"	전남광주 외 다른 지역뉴스가 방송됨. 우리 지역 관련 뉴스를 바람	아침뉴스에 2, 3개 방송됐던 MBC 타 계열사 뉴스를 없애고, 지역 현안과 연계한 코너를 통해 지역 이슈와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겠음	○		
"	도시와 농촌 교류, 농산물 소비 등 프로그램 바람	도농 교류, 농산물 소비를 비롯해 지역소멸 등 다양한 관심을 두고, <빛나는 나의 도시> <테마기행길> 등 프로그램 제작에 반영하겠음	○		
"	행정 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 필요	앞으로도 행정 통합의 시계가 거꾸로 가지 않도록 지속적인 보도와 관심으로 성공적인 전남광주 특별시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음	○		
"	<시사용광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제에 관한 배경 설명 필요	시청자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 초반 아이템에 대한 소개와 토론 이유 등에 대한 상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세한 설명을 곁들이는 노력을 기울이겠음			
〃	<시사용광로> ‘청년정책은 청년을 구했나?’ 편, 주거, 일자리 등 구체적 토론 부족 아쉬움	창사 특집은 물론 <시사용광로>에서 더 구체적인 대안이나 해답을 모색할 수 있도록 담당 PD, 작가와 구성 등 토론 방법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음	○		
〃	<시사용광로>, 토론 이후 지속적인 관심 필요	<시사용광로> 이슈를 다음날 뉴스를 통해 재구성하고 후속 기사가 있을 경우 추가 취재를 통해 보완해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교양	<빛나는 나의 도시> 특정 업체 부각, 광고효과 유의 필요	광고효과를 주지 않도록 제작 시 더욱 유의하고, 자체 심의교육을 실시하겠음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6년 9월)

일 시		2026년 9월 16일(수) 17시	장 소	회의실
참 석 자	위 원 회	박봉순 · 박찬호 · 반수경 · 설제학 · 심재현 · 양지현 · 유동국 · 이미진 · 이숙영 · 이해경 · 조명근 위원(11명)		
	회 사	김낙곤 사장, 황동현 경영전략본부장, 한신구 방송본부장, 서준배 디지털본부장(4명)		

■ 회의 내용

- 황동현 경영전략본부장 : -9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다. 위원장을 선출했는데, 위원장이 공직을 맡게 돼 사임을 하게 됐다. 새롭게 위원장님을 뽑아야 한다.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겠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
- 조명근 위원 : -우리 위원회에서 연장자이신 박봉순 위원님이 잘 이끌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박봉순 위원님을 추천한다.
- 황동현 : -추천 감사드린다. 다른 분 또 추천을 바란다. 추천이 없으신 관계로 박봉순 위원님 한 분을 대상으로 찬반을 거수로 정하겠다. 위원장으로 동의하시면 손을 들어주길 바란다. 오늘 참석하신 열한 분 가운데 박봉순 위원님을 제외한 열 분이 동의를 해주셨다. 이로써 박봉순 위원님이 새 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지금부터는 박봉순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다.
- 박봉순 위원장 : -여러분들의 기대에 잘 부응할 수 있도록 시청자위원회 이끌어 가도록 하겠다. 이미진 부위원장님과 함께 잘 협의하고 재미있고 화기애애한 위원회가 되었으면 한다. 오늘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간부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먼저 사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낙곤 사장 : -전 위원장이 공직에 취임한 관계로 호선으로 새 위원장님을 모시게 됐다. 축하드리고, 맡아주셔서 감사드린다. 광주MBC는 그사이에 방송본부장을 새롭게 임명했다. 지상파본부와 디지털본부가 큰 줄기인데, 뉴스팀과 지상파의 TV, 라디오 제작 콘텐츠를 포함한 방송본부장을 사장이 지명을 하고 구성원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다. 한신구 본부장은 뉴스 기자로 활동해 왔고, 취재부장, 보도국장, 경영국장을 했고, 방송본부장을 맡게 됐다. 지상파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좋겠다. 방송본부장은 인사 말씀 바란다.
- 한신구 방송본부장 : -임무를 맡게 돼 버겁기도 하지만 열심히 하겠다. 통합 이후에 의대 설립 갈등 등 복잡 첨예한 문제가 걸려 있는데 언론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 감사드린다.
- 김낙곤 사장 : -추석이 1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 다음 달 10월 8일은 창사 62주년이 된다. 창사를 맞아 풍성한 기획을 준비하겠다. 10월 8일에 공개홀에서 기념식도 한다. 창사 특집을 준비하고 있고, 대한민국 김치대전, 영산강 그란폰도, 무등산권지오마라톤대회 등 다양한 행사에 매진하는 가을이 될 것이다. 위원님들도 관심 두고 조언과 관심 바란다.
- 박봉순 위원장 : -업무 보고를 해달라.
- 한신구 방송본부장 : -보도 부문부터 말씀드리겠다. 지역 이슈뿐 아니라 주요 수도권이나 정치 뉴스의 로컬화로 현장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특히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역 이전 계획, 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에 따른 지역 현안 탄력 등을 다수 보도했다. 반도체 산단 공식 확정 이후 지역 산업구조 재개편, 맞춤형 인재육성을 위한 대학 교육체계 정립, 부동산 파장 등 다각적 경제 측면을 분석 보도했다. 통합특별시 및 시 교육청 출범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대민행정 서비스 변화, 조직개편 과정의 갈등 양상, 향후 과제 등을 밀착 취재했고, 구호성 통합 보도에 그치지 않고, 복지와 경제, 민생 등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했다. 특히 '광주·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지역 산업구조 재개편, 대학 교육체계 정립, 부동산 파장 등 경제적 측면을 심층 보도했다. 한빛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주민 우려와 기대, 스쿨존 보행자 중상 사고, 장애인복지관 중증장애인 추락사 등 휘

발성이 강한 주요 사건·사고 기사를 일회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대안 제시로 이어지는 보도를 여러 차례 했다. 주요 계획으로는 아침 뉴스 개편을 준비하고 있으며, 창사 62주년 및 광주특별시 출범 100일 기념 여론조사를 기획하고 있다. 광주MBC 등 지역 언론 3사 합동 정례 조사인데, 출범 100일 맞은 민형배 시장과 김대중 교육감 직무평가, 2호선 2단계 안갯속 등 지역 현안 지역민 인식 조사 등을 구상 중이다. 이 밖에도 광주비엔날레와 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 필요성, 반도체 산단 실무 속도, 광주공항 임시 국제선 취항 명암, 장윤기 살인사건, 스쿨존 보행자 중상 사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중증장애인 추락사 등 지역 주요 현안을 계속 보도하고자 한다. 또한 다시 불거진 통합시 약칭 논란, 출범 석 달째 ‘아직도 조직개편 중’ 등 광주특별시 출범 후 관련 아이টে을 계속 보도하겠다.

-콘텐츠팀의 주요 업무 보고를 하겠다. 주조정실 재난방송 시스템을 점검하고, 창사 특집 대토론 <메가프로젝트> 3부작 기획, 섭외 등 업무를 진행 중이다. 9월30일, 10월1일 녹화하고, 방송은 10월8일, 15일, 22일이다. 라디오 창사 특집 공개방송 <정오의 희망곡> ‘굿모닝 양림’은 10월16일 현장 녹음이 진행된다. <더 프레지던트>는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편성한다. 정규프로그램으로 9월3일 <시사용광로> 통합 특별시 출범 두 달, 전남광주특별시는 지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확보 해법은?, 2026 아시안게임, 우리 지역 선수들의 활약은? 등을 주제로 방송했다. <빛나는 나의 도시>에서는 빛나는 당신 초대석 김병내 남구청장, 전설의 가들 김민규, 김성한 해설위원, 민형배 광주특별시 시장 등이 출연했고, 나주배 첫 출하 현장, 영광 모싯잎 송편 및 광주 야행 현장을 촬영하기도 했다. 아시안게임이 이번 주에 개막하고 2주 동안 진행된다. 편성이나 뉴스가 잦은 변경이 있을 텐데 유동적인 상황 대비해 방송사고 없도록 충실히 대처하겠다.

- 서준배 디지털본부장 : -디지털본부 실적부터 말씀드리겠다. 광주특별시민을 위한 반도체 특별과외를 매주 토요일 올리고 있다. 유튜브용 콘텐츠를 지난 9월1일 촬영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전환지원사업을 수행 중이다. 테이프 2,016개를 디지털로 전환했고, 총 28,000개를 예정하고 있다. 불방 기사에 AI로 음성을 더빙해 AI 뉴스를 제작하는 작업을 하여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동시 업로드 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유튜브 콘텐츠로 <광주 then and now>를 제작하고 있다. 광주의 과거와 현재를 교차 편집하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조선대학교, 상무지구, 양림동, 염주, 아시아자동차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설의 타이거즈>는 방수원, 장호연 편을 촬영했고, <암 극복 프로젝트>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편 등을 제작하고 있다. 장성군 필암서원 다큐 제작을 계속하고 있으며 11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전남광주대학협의회와 ‘반도체/AI 지역인재 양성’ 공동캠페인을 방송할 예정이다. 주요 계획으로는 <더 프레지던트> 100분물 13편을 11월까지 제작해 방송할 예정이다. 특별시민의 ‘특별한 인터뷰’도 제작 준비 중인데, 시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공감과 감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유튜브 콘텐츠는 <광주 then and now>에서는 백운광장 편 등을 제작하고, 다큐 필암서원 제작을 계속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공익광고사업에 선정돼 캠페인 두 편을 제작하고, 무등산권지오마라톤이 10월10일에, 영산강 그란폰도는 10월31일에 열리는데 이 업무를 추진하겠다.

- 박봉순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 박찬호 위원 : -아침 <뉴스투데이>에서 주요 뉴스가 나오는데 두세 개씩 나온다. 다른 지역 뉴스는 주요 뉴스에서 뺏으면 한다. 다른 지역 뉴스가 주요 뉴스로 들어가면 광주·전남 시청자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 며칠 전에 했던 게 나오기도 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한다. 최근에 청년들의 직업이나 창업에 관해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관심이 높다. 그러나 언론에서 모두의 창업은 다루지 않는다. 과학 관련 이야기도 뉴스에서 소외된 느낌이다. 콘텐츠가 많아 우선순위에 밀린 느낌이다. 소외된 분야에 관심이 필요하다. 청년, 창업, 앵커 사업 등 지역에 정주시키는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뉴스에서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

- 반수경 위원 : -시청자위원이기 때문에 의무감을 가지고 시청한다. 많이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시청자는 생각지 못한 곳에서 여파가 쏠리는 점이다. 8월20일 <시사용광로>에서는 ‘버스하우스, 청년은 왜 분노하나?’를 주제로 청소년에 대해 토론이 있었다. 일단 주제 대상이 청년이라는 신선함과 청년에 관한 내용이 드물게 방송되는데 청년정책 등 청년을 주제를 기획한 점이 좋았다. 하지만, 주제와 달리 버스하우스로 인해 청년이 분노한 이유를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많았다. 버스하우스가 무엇인지 일반 시청자들은 이해하

기 어려웠으며 버스하우스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어떤 점이 논란이 되었고, 왜 감정이 표출되었는지, 도면을 비롯해 외관이라도 보여주고 눈으로 보면서 분노한 이유를 공감할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많았다. 버스하우스를 제안하게 된 배경도 출연진들끼리는 이해하고 있는 듯했으나 시청자들의 이해를 끌어내는 데는 한계를 느꼈다. 이후 진행되는 내용은 주로 청년정책, 청년 문제 특히 주거 및 일자리, 부채, 문화 여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어 제목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내용으로 미루어보면 제목이 ‘청년정책, 청년 문제를 짚어본다’ 등으로 해서 그중 하나의 주거 문제에 버스하우스를 다루었다면 맥락이 맞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울러, 청년들의 생활비 부채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시청자 입장에서 우려된 점은 시청하는 청년들이 부채에 대해 당위성을 가지는 부정적인 면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다. 예를 들면 부채가 있는 청년들은 “부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실이야, 내 탓이 아니야...”라고 말이다. 부채가 없는 청년 중에도 부채가 생겨도 사회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정당화할 수도 있는 내용이어서 방향이 다소 아쉬웠다. 또한, 방송할 때는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 좋겠다. 토론할 때 보면 배경 설명이 없다. 시청자는 주제를 이야기했을 때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제가 설정이 되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 설재학 위원 : -9월3일 방송된 <시사용광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두 달이 지난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과 여러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군 공항 이전 문제와 전남 국립의대 선정 문제가 해결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아직 진행 중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역의 여러 문제가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만큼 충분한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는 좀 더 속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현시점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지역의 여러 현안을 언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현안 중 한 가지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도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 심재현 위원 : -시사 프로그램은 잘 안 보는데 시청자위원이기에 시청을 하기도 한다. 방송에 초대된 패널에 관한 의견이다. 섭외와 관련해 예전부터 들었던 생각이다. 정치인이나 시민단체 분들이 출연해서 의견을 내는 게 많은데,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경제를 말한다. 정치하는 분이 청년정책 말하는 것 보면 저들도 모르면서 말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경제에 거시적인 흐름이 있다. 흐름 속에서 양극화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고, 소외된 계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런 여건하에서 청년을 위해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냉정하게 얘기해줘야 한다. <시사용광로> ‘청년정책은 청년을 구했나?’ 편을 보면 청년정책의 외연은 너무 광범위하여서 주제 자체가 모호했다. 청년정책 중 주거, 일자리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토론을 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싶다. 결국은 핵심은 일자리로 흘러갔고, 일자리 부족 원인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광주 전남지역에는 산업이 공동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정치인들이 관심을 두고 논의하여야 하나, 정치인들이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겪는 각종 어려움, 한계 등 현실적인 문제를 말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주거 문제는 자본주의 구조에서 통화량이 증가하고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다. 청년들에게 이러한 점은 이해를 구할 필요도 있다. 그런데도 국가는 청년들에게 최저 수준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를 공급해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 과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지는 의문이다. 말로만 하는 청년정책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강한 비판이 필요한 것 같다.
- 양지현 위원 : -9월10일 <광주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지역 농촌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 속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촌 인력난이 많이 해소해 주고 있다는 걸 보도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갈취와 여권 압수 등 인권 문제 고발 보도가 인상적이었다. 브로커의 지자체 침투 방식과 제도적 허점을 설득력 있게 잘 고발해주었다. 향후 사법 당국의 수사 진행 상황은 물론 지자체의 재발 방지 대책 등 대안 마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후속 보도도 이어지길 기대한다. 여수세계섬박람회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제점 등을 냉정하게 짚어주어서 더 관심을 두게 되는 기회였다.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남은 행사 기간 축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바라며, 축제에 대한 인기가 반등하길 바란다.

다.

- 유동국 위원 : -9월10일 <광주MBC 뉴스투데이>에서는 지역의 핵심 현안인 광주지역 기후 양극화, 기후 물러코스터와 도시 인프라 개선, 상습 침수 신안동 152억 투입, 여수·광양항 항로 확장을 심도 있게 다루며 지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다. 특히 광주·전남 권역에 국한되지 않고 포항MBC, MBC강원영동 등 타 지역사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영월 광산 재개장', '영덕군 보행환경 문제' 등 다채로운 소식을 다룬 점은 시청자의 시야를 넓히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다만, 다채로운 기획 구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도 호흡이 다소 느리게 느껴졌다. 이날 주요 리포트들, 고흥 고향사랑기부제 2분 45초, 영월 광산 재개장 2분 50초, 영덕 보행환경 2분 30초 등은 한 리포트당 소요 시간이 다소 길게 편성된 듯하였다. 또 김두식 앵커의 진행과 현장 리포팅 과정에서 전반적인 속도가 다소 느리고 음성이 다소 저조하게 전달되었다. 늘 치열한 현장 취재와 폭넓은 시야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애쓰시는 제작진과 진행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뉴스 이야기에 덧붙이고자 한다. 중앙 뉴스 진행 후 지역 뉴스만 30분 정도 한다. 30분을 어떻게 채울까 걱정이다. 15개~20개 뉴스 가운데 긴 분량의 꼭지가 5개 정도 나오기도 한다. 시청자가 볼 때 중앙에서 보던 뉴스와 지역 앵커로 바뀌면 뉴스가 길다는 느낌이 든다. 앵커 톤도 낮다. 리포팅하는 기자도 활기차고 높고 하면 좋겠는데 대체로 낮다.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는 낮은 게 아닌가 느낌이 든다.
- 이미진 부위원장 : -청년들이 부채가 진짜 많은 거 같다. 비트코인에 몰입하는 청년이 많다. 게임 등 불필요한 일로 부채가 생기기도 한다. 방송이 안 좋은 일을 가르치기도 한다. 범죄자 중에 방송을 보고 했다는 이도 있는데, 이런 부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많은 물 필요로 한다. 지역민도 희생이 필요하다. 화순 댐이 가뭄에 시달려 힘든 걸 봤다. 앞으로 방송에서도 이런 문제 다뤄서 희생이 없도록 잘 풀어갈 필요가 있다. 전에 방송에서도 잘했는데,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방송에서라도 충분히 어필해줬으면 한다.
- 이숙영 위원 : -대만관 관련하여 광주비엔날레 전시 이슈가 있었다. 반도체가 들어오면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관심이 많은데, 광주비엔날레도 마찬가지다. 정작 청년 예술가들이 참여할 기회가 적다. 문화예술에 종사하고 있는 젊은 예술가를 발굴하고 소개함으로써 청년 예술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이해경 위원 : -아침 뉴스를 보다 보면 안동 등 다른 지역뉴스가 방송된다. 지역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뉴스를 바란다. 행정 통합 이후 반도체 뉴스뿐이다. 도시와 농촌이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서로 체험한다거나 1박2일, 지역을 소개하거나 지역 농산물 소비한다거나 하는 등 교류가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
- 조명근 위원 : -최근 9월3일과 10일에 방송된 <시사용광로>를 시청하면서, 지역의 중요한 현안을 시의성 있게 선정하고, 이를 시민들이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특히 두 방송 모두 광주·전남의 현재와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현안을 선정했다는 점에서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한다. 9월3일 방송에서 다룬 자치구의 일반 시 전환과 재정·자치 문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지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단순히 행정구역이나 조직의 변화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재정 확충과 행정 효율성이라는 측면과 함께 광주의 정체성과 주민자치가 약화할 가능성까지 함께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특히 행정 통합이라는 큰 변화의 과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서로 다른 시각을 한자리에서 논의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사안을 한쪽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한다. 9월10일 방송에서 다룬 반도체 산업의 용수 문제 역시 시의성이 매우 높은 주제였다. 반도체 산업 유지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실제 산업을 가능하게 하는 용수라는 기반 시설의 문제를 핵심 의제로 끌어냈다는 점은 지역 언론으로서 의미 있는 접근이었다고 생각한다. 산업단지 조성이나 투자 규모만을 강조하지 않고, 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를 짚었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에게 중요한 문제의식을 던졌다고 본다. 방송에서 정치권, 학계, 언론 및 시민사회 등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패널들이 참여함으로써 하나의 현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한 점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특히 지역의 주요 현안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환경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엄혀 있으므로 특정 분야의 시각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사용광로>가 앞으로도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패널들이 공개적으로 논쟁하고 시청자가 그 논리를 비교할 수 있는 토론의 장 역할을 계속해 주기를 바란다. 좋은 의제를 선정해 토론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는 '토론 이후의 과정'을 추적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했으면 한다. 한 번의 토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몇 개월 뒤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지역 공영방송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시사용광로>가 단순한 시사 토론 프로그램을 넘어 광주·전남 지역의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고 검증하는 대표적인 지역 공론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실질적으로 문제 제기에 대한 부분은 시기적절하게 잘 되고 있다. 전남광주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하는 부분도 짚어가면서 매듭이 지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으면 한다.

- 박봉순 위원장 : -전남광주 통합시가 발족하여 2달이 지나도록 의대 설립, 군공항 이전, 반도체 산업 유치 등 굵직한 사업과 현안들이 많은데 관련 지역과 주민들이 각자의 의견만 고집하니 출발부터 내부적으로나 외부에서도 성공의 확신에 대하여 조금 우려를 하는 것 같다. 40년 만의 통합이 지역 기득권에 대하여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겠지만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성과를 내야 하므로 지역 미디어에서 긍정의 시그널을 많이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 방안으로 반대 의견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긍정의 목소리도 뉴스, <시사용광로> 등 전파력이 큰 프로그램에서 다루었으면 한다.

-기타 의견으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프로그램 개선 계도 관련 내용이 올라와 있다. <생방송 빛나는 나의 도시> 생활정보 프로그램에서 특정 업체를 과도하게 부각시켜 방송했다는 지적이다. 광고효과를 주는 부분이다. 방송 시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오늘 제시된 위원님의 의견 등에 대해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해달라.

- 한신구 방송본부장 :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의견에 대해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다. 청년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청년정책이나 저출산 정책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 포괄적인 것보다는 심층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게 하겠다.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신 주요 뉴스는 추석 이후 없애는 방향으로 하겠다. 기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이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자발성을 주려고 한다. 말씀해주신 부분 추석 이후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역 대학이 하는 앵커 사업 추려서 소개하고 청년에게 활기를 주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부분 이어갈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시사용광로>의 주제에 관해서는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 1분이라도 앞에 인트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제작의 기법을 다양화하도록 하겠다. 심재현 위원님 <시사용광로>로 의견을 주셨다. 저희가 주제를 가장 먼저 고민하고 그다음 패널을 선정해 일정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고사를 많이 하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그때마다 내용 등을 보완하도록 하겠다. 이미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물 문제도 관심을 가지겠다. 반도체 관련 용수가 65만 톤이 필요하다고 한다. 동복댐을 수위를 높일 때 150~200가구가 다시 이주해야 할 상황이다. 추석 때 성묘를 갈 텐데 그분들의 애환 등을 소개하겠다. 피해 주민이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유동국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현실적인 제약 조건이 있다. 서울은 오늘 뉴스이다 보니 몰입감이 있다, 지역은 기획뉴스로 나가다 보면 제안, 정책, 고발 형태가 되기도 한다. 기계적 힘을 빌려 톤을 높인다거나 시청자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숙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경쟁사에 비해 문화 부문에 뉴스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 지역 예술인, 청년, 공간에 뉴스의 문을 열어드리려고 한다. <빛나는 나의 도시>나 라디오 등 통해 공간을 넓혀보도록 하겠다. 아침 뉴스 시간이 길다. 취재기자는 부족하다. 그런데도 아침 뉴스 시간을 통해 이슈와 인물 등을 다루고, 집중 아이টে를 통해 여러 해결책 찾는다거나, 다른 지역이 아닌 우리 지역의 뉴스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시사용광로>에서 제기된 부분은 다음 날 뉴스에 방송하면서 이슈화하고 후속 내용이 나오면 보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 방송 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프로그램 계도는 제작 시 더욱 유의하도록 하겠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더욱 신경을 쓰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 김낙곤 사장 : -오늘 날카로운 지적 많이 해주셔서 저도 아프다. 잘 지적해준 부분에 대해 회사 대표로서 아프면서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해주셨다. 시청자를 대변해주신 내용에 대해 제작진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 광주MBC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 반도체, 청년 등 다양한 현안이 다 담겨야 하는데 다 할 수 없는 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 박봉순 위원장 : -지난달 회의에 제시된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돼 있다. 이에 관해 별도 의견이 없으면 9월 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다. 환경이 열악하지만, 사장님께서 잘해줄 것으로 본다.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회를 마치겠다.

끝.